

2020. 4. 16

자동차

중국 자동차 수요, 플러스 성장 전환

자동차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
02. 6454-4866

joonsung.kim@meritz.co.kr

RA 이다빈

02. 6454-4882

dabin.lee@meritz.co.kr

중국 자동차 수요, COVID-19 영향 본격화 두 달 만에 YoY 플러스 성장 전환

지난 4월 15일 중국 자동차제조협회 (CPCA)는 정기 주간 산업수요 실적을 발표. COVID-19 (이하 C19) 영향이 본격화됐던 지난 2월 첫째 주 -94% YoY (이하 YoY) 판매 감소를 기록했던 중국 자동차 시장은, 그로부터 정확히 두 달이 지난 지난 4월 둘째 주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 (+14%)을 기록. YoY 감소 폭 축소가 지속되어 오기는 했으나, 여전히 신중론이 지배적이었던 시장의 일반적 예상보다 빠른 결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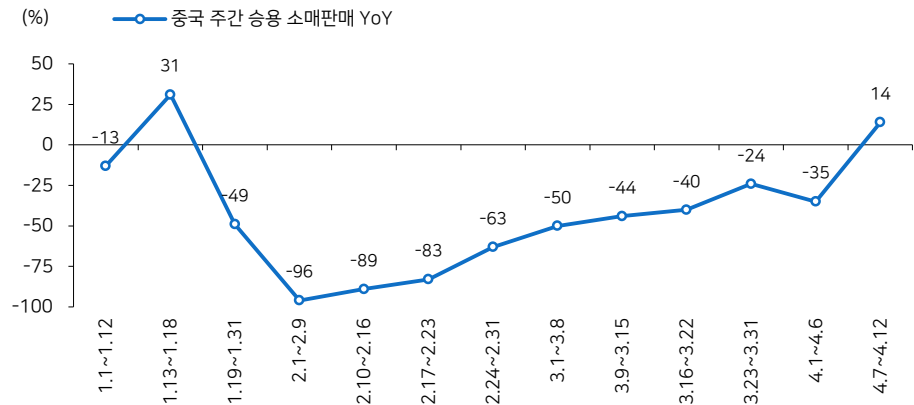
이 같은 회복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근거. 1) 대도시 번호판 규제 완화 및 폐차 지원금 부여 등과 같은 정부의 소비부양책 개시, 2) 대중교통을 지양하는 방어적 생활패턴 발현에 의한 신규 수요 발생, 3) 제한된 소비환경 속 늘려왔던 대기수요의 발현. 자동차 업체 및 딜러들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높은 강도의 수요회복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속 언급 중. 대표적인 로컬 OEM Geely는 지난 2월 · 3월 수요감소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20년 2분기 이후로 이어진 것일 뿐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음.

현대 · 기아차 및 부품업종, 점진적인 중국 공장 가동률 안정화 전망

현대 · 기아차 3월 중국 판매는 각각 30,838 대, 16,946 대로 전년동월 대비 -50%, -46% 감소. 다만, 극단적 소비심리 악화가 발생했던 2월 대비로는 각각 18 배, 16 배 회복. 앞서 언급한 산업수요 회복의 세 가지 근거 중 1번과 2번이 로컬 OEM 들이 강점이 있는 중소도시보다는 글로벌 JV 들의 판매점유율이 높은 대도시 수요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인 만큼 4월 이후 시장수요 회복과 동행한 양 사의 가동률 안정화 시작 가능할 전망.

추가적으로 중국의 빠른 수요회복은 상대적으로 후행적 위기국면이 진행 중인 타 시장에 대한 수요 전망에 있어서도 제한적이거나 긍정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.

그림 C19 영향 본격화 두 달 만에 YoY 플러스 성장 전환을 기록한 중국 자동차 산업수요



자료: CPCA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